

# 마음사랑

2019 봄호  
VOL.88

마음사랑 소식지는 열린마음, 밝은마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은 우리 모두의 바람을 담았습니다.

Smart  
Sweet  
Sincere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상의 만족을 제공하는  
**Smart 서비스**

고객의 마음을 읽고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Sweet 서비스**

고객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Sincere 서비스**

마음사랑병원은 3S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라  
북도 **마음사랑병원**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465-23  
Tel. 063)240-2100 Fax.063)240-2117  
<http://www.maeumsarang.co.kr>

전라  
북도 **마음사랑병원**



- 정와대: 대통령이 칭찬하신 마음사랑병원
-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 여성부 인증
- 남녀고용평등 대통령상 수상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
- 고용노동부: 노사문화유공 대통령표창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 평생학습대상 우수상 수상
-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 근로자 건강증진 사례 우수상 수상
- 기업학습 우수사례 기관 선정 노사 한누리상 수상
-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Cover Story\_ 마음사랑병원 '스마일캠페인'  
 마음사랑병원을 이용하시는 여러분께 드리는  
 직원들의 친절, 사랑 그리고 새 희망의 미소입니다.



## 소식지 봄 마음사랑

### CONTENTS

<b>인사말</b>		
여는 글	행복하고 싶다면	04
<b>건강</b>		
건강 길라잡이	애정결핍	06
메디컬 칼럼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의 불안을 위로하며	08
치료	마음사랑병원 마취하 전기자극치료(M-ECT)	10
<b>기획</b>		
기획이슈	열정가득! 의료 질 향상	12
<b>브릿지</b>		
내 마음의 심포	어서와! 마음사랑병원은 처음이지?	14
<b>정보</b>		
휴(休)	봄(장 프라스아 밀레)	16
<b>스토리</b>		
행복나누기	싱싱&생생 마음사랑병원 프로그램	18
마음나누기 - 1	술없는 인생	20
마음나누기 - 2	나도 예술가다	22
열정 36.5℃	열정 가이버! 시설팀 스토리	24
<b>뉴스&amp;안내</b>		
마음사랑뉴스	뉴스/재단소식	26
Information	월례교육	31
	셔틀버스안내	32
	마음사랑후원회	33
	사진 공모전	34
	마취하 전기자극치료 (M-ECT)	35

# 행복하고 싶다면



지금 행복하시나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일전에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서 마지막 가시는 날 함께 했습니다. 시설이 큰 곳이라 화장절차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진행되더군요. 그곳에서 유족들은 생전 고인의 종교에 따라 잘 가시도록 기도 하고 찬송하고 혹은 독경(讀經)을 하는데, 바로 옆방의 나이 드신 유족 중 한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약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에게 생전에 자신이 늘 편잔을 주고 못되게 굴었다며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는 오열이었습니다. 어찌나 큰 소리로 2시간 동안 소리소리 지르던지 ‘저 에너지로 남편을 들볶았다면 고인이 정말 힘들었겠다.’고 생각되더군요. 설령 자신의 기대에는 못 미쳤다고 해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도 있었을 텐데 왜 모든 게 끝나고서야 자책하며 후회할까요.

지난 겨울 미국의 위스콘신-메디슨대학에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관련 잡지에 발표하였는데요. 내용은 학생들에게 갑작스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호흡 등 호흡으로 안정 찾기, 자애의 마음 챙기기, 감사하기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을 무시하든지 관심을 주든지 고르는 주의력 조절 수행중 하나를 선택해 훈련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감사하기>가 다른 셋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행복지수를 높였다고 하지요. 미국의 심리학교수 소냐 류보머스키는,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지수는 유전자 50% 환경 10% 의도적 행위 40%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에는 유전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완벽히 치유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좋은 경험을 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의도적 행위는 운동하기 / 친구와 시간보내기 / 고마워하는 마음 갖기 등을 말합니다.

특히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미래를 긍정적으로, 감사를 바탕으로 가족과의 관계와 친구들과의 관계 및 직장에서의 동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세끼 식사를 제때 할 수 있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안한 이부자리에 누워 잠을 잘 수 있는 일처럼 우리가 해야 할 수 없이 다양한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에게 또 가족 친지 친구 직장동료에게, 더 나아가 따스한 햇볕/ 맑은 하늘/ 밤하늘 높이 뜬 달/ 아름다운 산과 나무, 예쁜 꽃들 하나하나 찾아 떠올리노라면 일상의 사소한 것들도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 중 감사할 일을 하루 세 가지 이상 찾아보면 어떨까요. 먼저 했던 감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것을 찾아 노트에 감사 일기를 쓰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일주일만 계속 감사 일기를 적어도 우울지수는 낮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높아져 삶의 만족도가 매우 향상된다고 했습니다. 매일 짧은 시간을 내어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언제나 꼬리치며 다가와 저만 바라보는 우리 집 강아지 사랑이에게도 감사해야겠군요.

밝은 햇살 아래 산천초목이 봄을 띄우느라 바쁜 이 계절 마음속 따스한 미소와 감사로 훈훈한 관계 만드시길 두 손 모읍니다. 여러분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여러분이 행복하길...♥

글 | 김성의 이사장







## 애정 결핍

애정결핍은 공식적인 의학용어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익숙한 용어이다. 미디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애정결핍으로 보이는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혹시 내 배우자나 애인이? 혹은 나도 애정결핍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대개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곽 준 진료과장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연인에게 집착하거나 진심을 시험하려고 이내 실망하여 이별을 반복하는 사연, 수없이 이용당하고 상대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매달리는 사연, 타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자기 벽을 허물지 못해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연,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며 외면당할 게 두려워 무리한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는 사연,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반대로 가혹한 훈육과 과한 간섭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워진 사연, 육아에 서툰 어린 부모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화가 나면 벽에 머리를 박거나 악을 쓰며 분노를 표출하는 아이.

우리가 애정결핍이 아닐까 생각하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정신의학의 영역에서는 이미 많은 논의를 거듭해왔다. 성격의 발달을 설명하는 고전 이론들과 생물정신의학 분야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아이의 타고난 기질(유전적 요인)에 유기와 방임, 학대 혹은 과잉통제와 같은 양육자와의 부정적인 초기 경험(환경적 요인)이 더해질 경우, 경계성 성격이나 여타의 병적 성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애착이론을 발전시킨 매리 에인스워스(Mary Ainsworth)는 '낮선 상황' 실험을 통해 평소 엄마의 양육 태도에 따라 아기의 애착양상이 달라짐을 확인했다. 안정 애착된 아기들은

애착이 불안정한 아기들에 비해 성장 후 인지적 과제나 사회적 상황에서 보다 뛰어난 수행을 보이는 등 애착양상에 따라 향후 적응능력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론에 따라 관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영유아기의 주 양육자와의 경험이 이후 성격 형성이나 인간관계를 비롯한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생애 초기에 결핍을 경험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채워지지 못한 애정욕구로 항상 허기지게 된다. 이들은 내면 깊은 곳에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잘못하면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는 핵심믿음을 갖게 되어 자존감이 낮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이들은 충분히 공감 받고 위로받은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스스로 털어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자기 위로 기능'이 약해져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 남들보다 더욱 쉽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다행인 것은 부모와의 생애 초기의 경험이 성격 형성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의 경험과 노력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을 부모나 환경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그때의 내 부모도 지금의 나처럼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여의치 않은 환경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그때의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아이였지만, 지금은 원치 않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미숙한 행동 대신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애정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는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상적인 관계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내 감정과 생각 중 부정적인 면을 반복해서 들여다보고 미숙하고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점검해보는 것이다.** 내가 주로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지, 그 기원은 무엇인지, 내가 지나치게 자책하거나 혹은 내 문제인데 남 탓만 하는 것은 아닌지, 내 행동이 그 순간의 불안을 해소하고 잠깐의 만족을 주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해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혼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어렵거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이나 불안을 겪는 등 고통이 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 내 상태와 여건에 따라 정신치료나 인지행동치료, 혹은 상담 및 약물치료 등 다양한 치료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방법이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쉽지 않은 과정이다. 지금까지의 평생에 걸쳐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만큼 내가 가진 부정적인 핵심믿음이나 성격을 다시 바꾸는 것은 간단치 않은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나와 내 소중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충분히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으리라 믿는다.♥

마음사랑병원 고객상담센터 063-240-2114 (24시간 상담)



##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의 불안을 위로하며



봄이 되면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가슴 두근거리는 설렘과 기대감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약간의 불안감을 가져오기도 하지요. 불안감이라는 것,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느 정도는 겪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겉으로 '나는 불안하다'라고 드러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마당에 불안감을 과도하게 느낀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평상시 우리는 불안을 경험할 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라고 궁금해 하면서 '내가 사람들과 어떤 트러블이 있었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나?'라는 의문을 갖고 불안의 뿌리를 찾아 다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이 경험하는 불안은 이와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일이건 학업이건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도착 지점에 성공 혹은 성취, 성과와 같은 결과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마도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나는 아무렇게나 일해도 상관없어!' 혹은 '나는 성적을 아무렇게나 받아도 괜찮아!'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만으로 항상 결과가 좋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 오는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낫다 저것이 낫다 저마다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저는 주변 사람들과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대해 하루, 일주일, 한달 혹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이라면 그 기간의 끝까지 일과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진영 진료과장

일과표를 작성하다 보면 작게나마 하는 일의 전반적인 흐름이 보이고,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예측도 가능하게 되어 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불안감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가 언제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과 함께 하는 불안감은 우리를 긴장시키고 완벽을 추구하게 하고 안전을 도모하게 하여 더 나은 성과와 성공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계획 없이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막연한 두려움은 더욱 큰 불안감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우리를 치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하는 일을 매일, 매주, 한달 혹은 정해진 기간까지 일과표를 작성해 나가거나 계획표를 세워 실천해 보십시오.

또한 불안감은 업무와 학업의 측면을 떠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지 않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혼자 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며,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형성해 놓은 관계로의 낯선 진입이라는 의미가 크기에 어떻게 보면 일보다 더 큰 부담과 불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라는 것이 범위가 넓고 관계하는 양상 또한 다양하여 조인이 쉽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지니게 된다면 새로운 곳에서의 적응이 마냥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나를 낮추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남을 배려할 때 일에서나 관계에서 진입장벽은 낮아지는 법이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두가지 이야기만으로 불안을 전적으로 해소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적은 지면을 할애하여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지만 이 짧은 글이나마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그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희망!

### 전라북도 마음사랑 마취하 전기자극치료(M-ECT)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 진료과장

전기자극치료(M-ECT)는 심한 우울증, 양극성 정동 장애, 조현병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약물 치료에 큰 효과가 없는 환자들이나 약물 부작용이 심하고 난폭한 행동을 보이며 심한 자살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라북도에는 전기자극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어서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소견서를 들고 서울 소재의 대학병원으로 가야만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2-3회씩 총 6-15회 정도 시행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연고가 없는 환자, 보호자들은 많은 불편감을 겪었습니다.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에서 2018년 최신의 전기자극치료 기기를 도입하여 시작한 전기자극치료의 횟수가 어느덧 100여 건을 넘었습니다. 현재 전기자극치료는 마음사랑병원의 숙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마취과 전문의가 치료시 상주하며 환자의 마취 시작부터 각성 시까지 관리하고 있어 현재 두통 및 근육통 등의 경미한 증상 외에는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청, 망상 등으로 인하여 10년 동안 수많은 병원을 전전하였던 만성 조현병 환자도 전기자극치료를 받고 입원 전에 비해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가 10년 동안 환자의 모습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이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치료진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환자분들 스스로 나아지고 싶다는 전기자극치료에 대해서 먼저 문의를 해오고 외래에서 시행하여 우울감이 좋아져서 표정이 밝아진 환자들도 보았습니다.

환자들은 오랫동안 약을 먹었는데도 우울감의 큰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은 우울감이 좋아지고, 생동감이 느껴진다고 몇 번이나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치료 시간이 환자가 마취에서 회복하는 시간까지 불과 3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꼭 입원해서 시행할 필요가 없고 외래로 와서 시행 후 당일 퇴원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우리 병원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기자극치료로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과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치료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고 뿌듯합니다.♥

### 🗨️ 치료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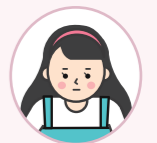


#### 송○○ 환자(양극성 정동장애)

계속되는 망상에 숨도 못 쉴 만큼 힘들어, 저 스스로 전기자극치료를 받겠다고 했어요! 정상적인 대화도 가능해진 제 모습에 가족들은 “증상을 앓기 시작한 최근 몇 년 중, 최상의 상태가 되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이제 마음이 놓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오○○ 환자(조현병)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환청이 사라져서 정말 기뻐요. 예전에는 환청 때문에 끊임 없이 혼잣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환청이 들리지 않으니 살 것 같아요.



#### 강○○ 환자(행동장애)

심한 우울·불안증세로 한 공간을 계속해서 배회하고, 말이 많아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 했었어요. 전기자극치료 이후에는 눈에 띄게 차분해졌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부모님께서 안도하며 뿌듯해하셨습니다.





# 열정가득! 의료 질 향상

글 | 정현순 QPS실장



마음사랑병원 전 직원은 '최상의 의료서비스' 실천을 목표로 각 팀별 주제를 선정하여 의료서비스 및 환자안전에 위한 질 향상 활동을 진행합니다. 경영진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질 향상 활동은 200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3년째이며,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어 병원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 분야** 의료 질 향상, 환자안전관리, 업무효율증대, 고객만족증진 등

**활동 절차** 주제선정 → 핵심지표 선정 → 자료수집 및 분석 → 개선전략 및 개선활동 → 활동평가(QI 경진대회)

연간 일정에 따라 체계적인 단계로 진행되며, 월별로 질 향상 활동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실행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매년 전략적으로 진행된 질 향상 활동은 QI(Quality Improvement) 경진대회를 통해 활동성, 현실적용성, 효과성, 발표성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QI 경진대회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팀 구호 후 발표로 진행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에는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긴장감이 흐릅니다. 부서별로 정성 다해 만들어진 프레젠테이션을 직원들은 눈과 귀로, 그리고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한 팀 한 팀 발표가 끝날 때마다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과 많은 박수로 현장을 들썩이게 합니다.



QI 경진대회에서 보여준 <치료의 질을 높이는 주제> <참신한 포스터 전시> <재치있는 응원전> 그리고 <뛰어난 발표>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질 향상 활동이 얼마나 내실있게 진행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2018년에도 더욱 안전한 병원, 고객만족도 상승 등 환자와 가족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질 향상 활동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상을 차지한 심신치료센터(급성기 입원병동)는 정신병원의 막연한 두려움과 불쾌감, 직접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대한 불안 등의 입원환자의 심리를 파악하여 '긍정적 경험 강화를 통한 입원 만족도 증대'란 주제를 선정하고, 치료환경과 업무 개선 및 환자안전, 편의 증대 등을 도모하고자 질 향상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입원환자의 걱정 집중치료 및 빠른 회복, 양질의 간호, 입원 만족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우수상을 받은 중독치료센터는 전문가의 다학제적 팀 접근을 토대로 '중독질환의 표준 진료지침'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중독치료시스템 확립과 치료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이뤘으며, 중독 환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치료 제공과 더불어 회복률 및 단주율을 증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인산재단 사랑드림은 3H CARE (HOPE:희망을 주는, HOME:내 집처럼 편안한, HIGH:질 높은 케어)를 실천하며 부서별 안전지킴이, 안전 이불넷을 통한 어르신 탈액제화와 안전한 환경조성 등으로 낙상예방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외에도 질 향상 활동 내용 및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 중심으로 발표하였으며, 의료서비스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음사랑병원 직원들은 의료 질 향상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또 다른 변화/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열기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의료서비스와 환자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실천은 환자와 보호자가 최우선이 되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선의 노력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공지와 보람 속에 지속적인 변화를 꿈꾸고 환자와 고객의 신뢰를 높이는 질 향상 활동은 계속되며, 마음사랑병원의 내일이 더욱 기대됩니다.

어서와

# 마음사랑병원은 처음이지?



글 | 공공사업팀 임솔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평소 TV 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즐겁게 보곤 합니다. 외국인들이 직접 경험한 '한국여행기'를 담은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에 처음 와본 외국인들의 시선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우리도 몰랐던 한국문화의 소중함을 배우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25년 역사! 600여 명의 입원환자! 190명의 직원! 많은 분들이 마음사랑병원을 오가며 삶의 한 부분을 만들어가고, 병원을 마음 속에 새기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각의 사연 속에 마음사랑병원 방문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마음사랑병원 '첫 방문 후기'를 통해 병원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고객의 마음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습니다. 더불어 소중한 방문 후기를 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 마음사랑병원은 처음이지? - 첫 방문 후기

### [서OO 환자]

저는 솔직히 입원 전에 정신과병원에 대해 큰 편견을 갖고 있어서, 입원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마음사랑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해보니 제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사선생님을 비롯한 치료진들께서 설득해주셨어요.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제가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지금은 퇴원하여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신 치료진께 감사드립니다.

### [김OO님 보호자]

아이가 몸이 좋지 않아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심적으로 힘들고, 주변의 시선이 너무 신경 쓰였지만... 가족까지 친절하게 위로해주고,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줄때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이 생겼어요. 매달 병원에서 진행되는 가족교육에 참여하는데, 우리 아이가 정신적으로 어떤 아픔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답니다. 또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쾌적한 시설을 보니,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애가 빠르게 회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규 간호사]

병원 로비로 들어서니 직원들이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건넵니다. 살짝 부끄럽기도 했지만 마치 제가 사랑받는 것 같군요. 인산관이라고 안대된 곳에는 아름다운 꽃과 싱그러움 식물들로 가꿔진 정원이 있습니다. 마음사랑병원 직원들은 멀리 가지 않고도 병원 안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어 상쾌한 휴식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병동으로 가는 길목에는 작은 폭포와 금붕어가 헤엄치는 어항들.. 그리고 여러 그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아닌 마치 갤러리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드네요.

### [식품업체 직원]

저희 업체에서 전복에 있는 많은 병원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여기 병원은 주문하는 재료만 봐도 어떤 자세로 환자를 대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인스턴트 제품 없이 신선한 재료만 취급하는 마음사랑병원을 보면 환자의 치료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죠.

### [외부 공연단]

오늘 방문한 곳은 마이산 가는 길에 보이는 연두색 하트! 바로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입니다. '전기자극치료, 치매병동, 중독치료센터, 2주기 인종' 등 형형색색의 현수막이 펼쳐진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가보니 맑은 공기가 느껴집니다. 공연준비를 기다리다 병원을 둘러보았습니다. 병원 곳곳에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좋은 글귀들이 붙어있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어, 이들의 회복을 앞당기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환자와 의사, 간호사 선생님 모두 밝은 미소로 반겨주시네요. 뉴스나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무섭고 어두운 이미지와는 다르게, 정신병원이 이렇게 밝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감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상쾌했던 방문이었습니다.

### [학생간호사]

전라북도에 있는 간호대학 내에는 소문이 다 났어요. 마음사랑병원 밥이 정말 맛있어 실습기간 동안 살이 찌서 돌아간다구요^^ 병동의 한 직원분께서는 "맛있는 음식이 담긴 환자들의 식판을 보며 침을 속으로 삼키는 일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셨어요. 식사뿐만 아니라 허브로라는 카페에서 사먹는 커피와 간식거리에 즐거운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생을 위한 교육 및 편의시설이 너무 좋아 불편함 없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음사랑병원 첫 방문 후기를 보며, 오늘도 다짐합니다. "각자의 아픔과 사연을 안고 오시는 환자들의 첫 방문이 빠른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봄

By 장 프라수아 밀레

글 | 햇살클리닉 모은희 책임간호사

이 작품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알려진 「만종」의 화가 '장 프라수아 밀레'의 또 다른 대표작입니다. 사계(四季)를 주제로 그린 연작 중 하나인 「봄」은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부의 화가'로 불릴 만큼 농촌의 풍경과 일하는 농부의 모습을 섬세하게 묘사한 그의 명화를 소개합니다.

## 작품이야기

이 그림은 프레데릭 하트만이라는 사업가가 사계를 주제로 주문한 완성작 중 하나입니다. 그는 원래 밀레가 아닌 테오도르 루소에게 연작을 의뢰했지만, 우연치 않게 루소가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뜨게 되자 밀레에게 그림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1873년, 봄의 풍경을 가득 담은 해당 명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작가가 바르비종에 있는 정원에서 즐겨 관찰했던 전경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그린 이 풍경화는 오솔길을 통해 감상하는 이를 '봄'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면 왼편에는 꽃이 만발한 사과나무와 채소밭이, 그리고 이제 막 가지개를 피려는 들꽃들이 보입니다. 하늘로 시선을 옮기면, 무지개가 걸려 있는 남빛의 하늘이 방금 소나기가 내렸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이에 밭을 지나가던 농부는 갑자기 내린 소나기를 피해 나무 밑으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농촌 풍경을 담아낸 그의 작품에서 다양하게 묘사된 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밀레가 그린 봄의 풍경은 제목과 조화되지 않을 듯한 어두운 처리로 무조건 화사하지도 매우 밝지만도 않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소나기가 지나간 어두운 하늘에는 무지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잠깐의 소나기 덕분에 촉촉하게 젖은 땅 위의 나무와 식물들은 더욱 생기를 띄고 있으며, 다양하게 표현된 녹색 톤들이 생동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 길을 알록달록하게 장식하는 꽃들의 묘사에서 느낄 수 있듯이, 자연을 성실하게 관찰하는 것을 즐겼던 밀레는 작품을 통해 자연이 보여주는 어두움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는 빛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일종의 낭만주의 시선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놀랍도록 신선한 색채를 통해 잘나의 순간을 화폭에 담고자 했습니다.

## 작가이야기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 출생의 밀레는 초창기 세르부르에서 그림공부를 하다가, 1837년 장학금을 받고 파리로 진출하였습니다. 그 후 출판한 「곡식을 키질하는 사람」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농촌을 주제로 화폭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1849년에는 파리 교외의 바르비종으로 이사하여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생활과 주변의 자연풍경을 그렸습니다. 그는 「만종」, 「이삭줍기」, 「씨뿌리는 사람」 등 농촌에서 살며 취재한 일련의 작품을 진지한 태도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독특한 시적정감과 우수한 찬 분위기가 감도는 작품을 확립하였고, 바르비종파의 대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바르비종파 화가들과는 달리 풍경보다는 농부의 모습을 더 많이 그렸습니다. 그의 작품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풍기는 종교적 정감이 감도는 서정성으로 친애감을 자아내어, 오늘날까지 유럽회화사상 유명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의 노년기는 상업적인 큰 성공과 공식적인 명성의 정점으로 평가되었으나, 점차 건강이 악화되어 정부에서 의뢰했던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빈곤했을 시절 얻은 결핵이 원인이 되어, 1875년 1월 20일 61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



장 프라수아 밀레  
Jean-François Millet

사실주의 화가  
(프랑스, 1814 ~ 1875)



# 환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싱싱&생생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프로그램 파트 김형태 간호사

마음사랑병원은 환자의 회복과 재활을 돕기 위해, 내실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의 의견을 반영함은 물론 본원 '프로그램 위원회'의 열린 토론과 고심 끝에 치료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합니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입원치료기간 동안 치료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을 목적으로 정신재활, 중독재활, 노인재활, 예술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새롭게 도입하여 환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환자들의 참여소감을 전해드리고자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 문학심리요법 (매주 1회, 월)

문학작품을 읽고 작품이 주는 교훈과 의미를 음미하며 내면의 감성과 감수성을 일깨워 잠재되어 있는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게 됩니다. 다른 참여자들과 느낌과 생각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나눔으로써 배려와 경청의 자세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Q 문학심리요법을 참여하면서 변화된 점이 있나요?

A 박OO 환자 | 처음에는 내 생각과 감정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려웠었는데, 음악과 함께 문학작품을 읽고, 그날의 주제에 따라 시도 써보고 나면 내 마음의 상태를 헤아릴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나마 글을 통해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되고, 마음의 치유가 되는 것 같아 매주 월요일이 기다려져요.

## + 동물매개요법 (격주 1회, 목)

동물은 사람을 비판하지도 않고 어떤 이야기든지 비밀을 지켜줍니다. 이러한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환자들은 의사소통과 사회기술을 연습하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동물과 함께 교감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Q 동물매개요법에서 강아지와 교감하며 느낀 점은 무엇일까요?

A 이OO 환자 | 제가 평소에 화를 많이 내고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강아지를 안고 쓰다듬고 빗질도 해주고 함께 게임도 하면서 마음이 안정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 강아지와 눈을 맞추며 교감을 하다보면 강아지가 나를 이해해주고 있다는 느낌에 위로를 얻게 되요.



## + 도예요법 (매주 1회, 월)

흙을 만지고 주무르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연습니다. 부드럽고 점력이 강한 흙의 성질을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로 모양을 만들고 표현의 즐거움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품완성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Q 도예요법에 직접 작품을 만들며 느낀 소감이 무엇인가요?

A 김OO 환자 | 찻잔, 접시, 그릇, 꽃병 외에도 창의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내 손으로 만들어 보고 결과물로 완성되는 과정이 뿌듯합니다. 도자기가 초벌구이가 된 후에는 색도 입혀보고 온전히 무언가를 집중해서 만들다보면 다른 잡념이나 걱정들이 사라져서 좋아요. 완성된 작품을 볼 때면 성취감도 있지만, 그때 만들었던 감정도 떠오르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 + <우리함께 하모니> 낮병원 합창 프로그램 (매주 1회, 목)

회원 각자의 목소리가 선율이 되어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만드는 과정에서 협동심과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협력하며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타인과 조화롭게 생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신나게 음악을 즐기는 시간으로 회원들에게 인기만점인 프로그램입니다.



Q 합창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A 최OO 환자 | 연말 환우송년회 때 합창을 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공연을 마치고 난 후 처음 발성연습부터 개별 노래지도도를 통해 하나의 화음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이 기억나면서, 실수없이 우리가 해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공연장의 환자와 직원들이 모두 박수를 쳐줄 때 너무 행복하고 뿌듯했어요. 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 같아요!



# 술없는 인생



중독치료센터 김OO환자 / 전인화교육 19기 수료생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술을 접했어요. 술을 마신지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당시 같이 술마신 친구들 중 한 명이 철제 국그릇에 소주를 털털 붓더니 원샷을 했어요. 그런 친구와 소주를 마시게 됐죠. 제 큰 삼촌께서는 술을 엄청 많이 드셨던 분으로 결국 만취상태로 기차를 타고 달리는 기차안 통로에서 추락사하셨고, 저의

친가 외가 남자 어른들 모두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좋아하세요.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건강이 좋은 상태는 아니랍니다. 저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주량이 세지도 않으면서 ‘술과 끝장 보자’는 식으로 마신 거죠.

그 결과, 현재 제가 처한 상황은 직장퇴사, 4곳에 달하는 대부업체 빚, 음주면허취소, 면허취소벌금 450만원, 차량파손 수리비 850만원, 카드 연체 그리고 입원 전에는 집사람이 저와 이혼하려고 변호사를 만났어요. 다행히 지금은 이혼을 취소한 상태지만... 2018년 8월 22일 마지막 음주운전을 하면서 가족, 직장, 집, 차, 건강, 맑은 정신, 내 생명이 담보로 잡히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삼풍백화점 무너지듯 한번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아주 처참하게... 음주운전을 하면서 제 정신상태는 ‘내가 왜 다시 술을 마셨지?’가 아니고, ‘그래 술 마셨다. 그런데 어떻게 수습하지?’라고 생각하고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어요. 완전히 자포자기상태로... 식칼로 자살시도도 두 번 했었어요.

직장생활도 처음은 좋게 출발했죠. 자녀학자금 지원되는 회사에 취직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자’, ‘동료를 위해 술선수범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했죠. 그래서 우수사원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라고 동료의 응원어린 메시지도 받았었는데... 언젠가부터 상사의 잔소리, 동료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술을 마시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거짓말로 조퇴하고 결근하는 경우도 빈번해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보니 자주 다치기도 하고, 술자리에서 동료에게 사적인 얘기를 꺼내 싸움을 일으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결국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경위서를 써야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자존심과 수치심 때문에 자진퇴사를 선택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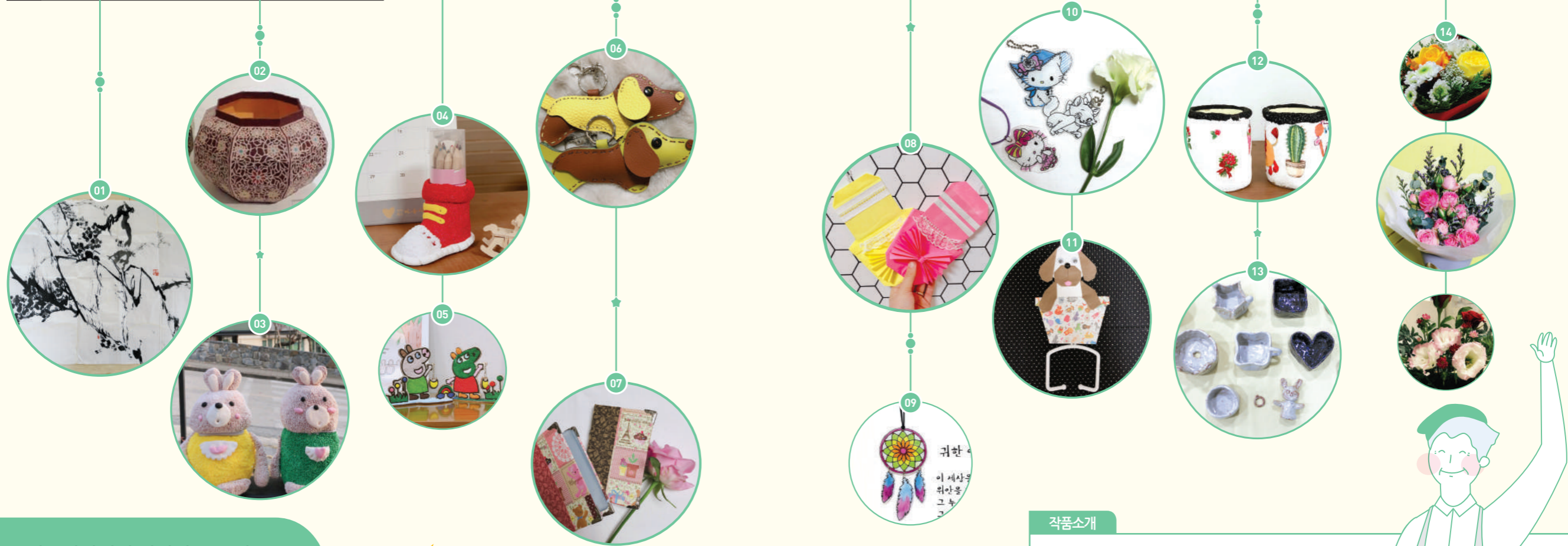


술 조절이 안 됐어요. 소주 한 병으로 시작해 두 병, 세 병, 어떤 날은 그것도 모자라서 돈 없이 택시를 타고 술집으로 가서 외상술을 마시고... 완전히 외상인생이었어요. 무전취식으로 과태료도 내고, 경찰이 친구인 양 반말하고, 몰래 술을 마시는 상황까지. 제 인생의 마지막 술은 2018년 9월 7일 대낮이었어요. 저는 말 그대로 어찌할 수 없는 미치광이, 안하무인, 구제불능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버지께서 제게 “지랄병한다”라고 자주 말씀하셨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집사람의 소개로 2018년 9월 8일, 마음사랑병원 중독치료센터에 입원했어요. 이 병원은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더군요. 입원한 이후로 중독치료센터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빠짐없이 성실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병원 선생님들께서 하라는 대로 매일 일기를 쓰고, 감사일기도 적고, 명상도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몰랐는데, 선생님들께서 조언해주신 대로 해 보니 중독과 싸우는 제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도 구입해서 읽고, 작년 11월에는 전남 화순에서 열린 중독자들의 자조모임 ‘라운드 업’에 참석하여,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료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마음사랑병원 중독치료센터 진행하는 12주간의 <전인화교육>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이수한 끝에 19기 수료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언젠가 <변화단계 그룹치료> 교육에서 ‘아빠에게 감사한 54가지’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는데, 저도 가족에게 전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흘렸어요. 답장은 기대 안해요. 이것도 제 욕심인걸요...

저는 단주생활을 평생 죽을힘을 다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죠. 마음사랑병원에서 배운 대로, 사회로 나가 살게 될 삶을 다시 계획하며 지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교육의 필요성과 인생을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길을 깨닫게 해주신 모든 마음사랑병원 중독치료센터 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집사람,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마음사랑병원 환자작품 소개

나도 예술가다



작품소개

- ① 수묵화
- ② 국화당 향아리(한지공예)
- ③ 토끼 요지통(폼클레이 공예)
- ④ 지관통 연필꽂이(폼클레이 공예)
- ⑤ 장식품(폼클레이 공예)
- ⑥ 키링(바느질 공예)
- ⑦ 카드지갑
- ⑧ 메모 보관함
- ⑨ 드림캐쳐
- ⑩ 목걸이&열쇠고리
- ⑪ 강아지 휴지걸이
- ⑫ 냅킨아트 연필꽂이
- ⑬ 도예작품
- ⑭ 원예작품



손재주가 뛰어나 이것저것 잘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금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사랑병원에는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금손을 가진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원예/도예/한지공예/미술 영역은 물론, 악세사리 및 일반용품과 같은 다양한 작품을 풍부한 미적감각으로 완성합니다. 작품에 몰입하는 환자들의 눈빛에서 높은 집중력을 느낄 수 있으며, 불안했던 심리상태가 안정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강한 우울감과 끓어오르는 분노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한 환자는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며, 마음이 평화로워졌고 기분장애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후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작품을 한 자리에 모아, 연말에 진행된 <환자작품 발표회>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가족들과 외부고객께서는 전시된 작품을 감상한 후, 환자들의 뛰어난 솜씨에 감탄을 연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술감각과 재치가 넘치는 '10점 만점의 10점'을 자랑하는 환자님들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환자작품 발표회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사랑병원은 환자 개개인이 자신있어하는 부분, 즉 강점에 집중하여 이들이 가진 재능을 더욱 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원은 효과적인 프로그램 및 교육을 통해 환자분들이 자신의 재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병원의 안전은  
우리의 손에 달렸다’

# 열정 가이버! 시설팀 스토리



글 | 김지태 시설팀장

사랑합니다. 기해년 돼지해가 밝아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오면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게 되고, 산책을 비롯해 환자분들의 외부활동도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빠른 회복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모든 환자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마음사랑병원 시설팀은 환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마음까지 따뜻하고 집과 같이 포근한 병원! 입원생활에 불편이 없는 병원! 안전하고 믿음이 가는 병원!’**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환자와 직원의 안전은 우리의 손에 달렸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및 시설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안전관리란 사고발생 시 다수의 안전이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꾸준히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최근 화재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전 직원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꾸준한 화재예방점검을 실시하고, 화재대피훈련과 예방교육을 진행하여 입원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설팀의 역할이 곧 병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엔 더 큰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시설팀의 장점이라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의 마인드로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4명의 직원은 각자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1+1+1+1=4가 아닌 10, 100, 1000 이상의 힘을 발휘하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고, 환자와 직원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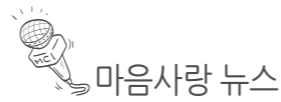
아프리카의 연구관이 촌락에 가서 상품을 걸고 아이들에게 이런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나무가 보이지? 나무까지 가장 빨리 가는 사람에게 과자를 줄게”라고 했는데, 누가 가장 빨리 뛰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손을 함께 잡고 뛰었다고 합니다. 1등을 해서 과자를 독차지하고 싶지 않았다는 연구관의 물음에 아이들은 “우분투(UBUNTU)!”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나 혼자 과자를 다 가지면 다른 친구들이 모두 슬퍼할텐데,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할 수 있겠어요?”라고... 우분투란 **‘내가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을 가진 아프리카어로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시설팀 또한 ‘우분투 정신’으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병원 내외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적 아이디어와 협업을 통해 병원시설을 자체적으로 개선하여 시설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안개선>제도에서 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QI(의료 질 향상) 경진대회에서 장려상과 포스터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직원들의 격려는 시설팀의 사기와 단합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팀은 말과 행동으로 감동을 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는 든든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고객이 **‘매우만족’** 할 때까지~ 2019년 시설팀의 활약을 지켜봐주세요.^^❤️



# Maeumsarang News



## 마음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시작



### 오규한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회원
- 을지대학교병원 인턴, 레지던트 수료
- 근로복지공단 장해판정위원
-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병원 전임의
- 공군본부 항공의무과 정신보건담당

전문분야

- 우울 및 불안장애 - 정신신체의학 - 조현병

## 마음사랑병원 마음사랑병원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곽유미  
간호사



권옥희  
간호사



박현  
간호사



신혜연  
간호사



전혜미  
간호사



이장호  
간호사



정연주  
간호사



주진  
간호사



최유빈  
간호사



황다은  
간호사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사랑 간호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 마음사랑병원 2019 신규직원 교육



본원의 새 가족이 된 16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신규직원교육이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직원들은 정신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종사자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병동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할 수 있었다.

## 마음사랑병원 2018 하반기 인산인 및 모범직원 표창



마음사랑병원은 2018년 하반기를 결산하며 인산인(仁山人)과 모범직원 및 공로상 그리고 서비스 우수부서를 뽑아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인산인'은 병원발전에 공헌한 1인의 직원을 선발하여 상패와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포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간호부 이희준 간호사가 선정되었다. 이처럼 본원은 매년 상·하반기와 분기별로 다양한 직원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하반기 결산 수상자>

- 인산인** 간호부 이희준 간호사
- 모범직원 (병원)** : 최채희 간병사, 이지연/박민실 간호사, 황경진 보호사, 최인숙 조리원, 최선미 영양사
- (재단)** : 정신재활시설 아름다운세상 루세나, 경음시정신건강복지센터 김행미,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원다혜,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 박미경
- 공로상** 서비스코디네이터 김형태 간호사
- 서비스 우수부서상** 사회사업팀, 사랑클리닉



마음사랑병원 2019 마음사랑 가족교육 안내



마음사랑 가족교육은 가족들이 환자의 질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제2의 치료자인 가족의 긍정적 기능을 개발,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환자 가족 및 정신질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족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 문의 : 063-240-2160(사회사업팀 가족교육담당)

1월 30일	'2019년' 가족교육 길잡이	7월 24일	마음사랑병원 병동별 치료 과정
2월 27일	환자와의 의사소통 '내 마음이 들리나'	8월 28일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이해와 현황
3월 27일	정신질환의 이해와 치료	9월 25일	조현병의 이해와 치료
4월 24일	환자와 가족이 함께 떠나는 '가족아우회'	10월 30일	통합재활프로그램
5월 29일	정신과적 위기 상황과 대처법	11월 27일	만성정신장애와 신체건강관리 (당뇨, 알콜 및 흡연 등)
6월 26일	정신과 약물 이해와 올바른 복용법	12월 18일	함께해서 더 행복한 '가족송년회'

재 / 단 / 소 / 식

노인요양시설 사랑드림

<고향마실 프로그램> 진행



사랑드림은 2019년 특화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께서 그리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추억을 회상하고, 뜻깊은 기억을 만들어 행복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고향마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마주하자, 어르신들은 기쁜 마음에 눈물을 보이셨고 서로의 얼굴을 감싸며 그리웠던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사랑드림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신재활시설 아름다운세상 2019 시무식 개최



새해를 맞이하여 당사자 및 종사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아름다운세상에서 작년 한 해 진행했던 사업을 돌아보고, 2019년에 계획한 다양한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어서 재활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 당사자 대표를 선정하여 모범상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에는 당사자/가족/종사자 모두 안전하고 즐길 수 있는 한 해! 우리 모두 배우고 성장하며 변화하는 한 해가 되자!” 라고 외치며 이날의 시무식을 마쳤다.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 프로젝트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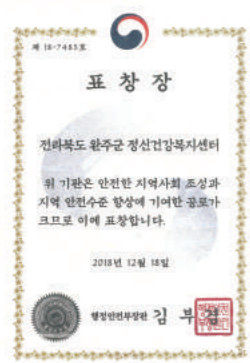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될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관리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중에서는 보호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센터는 학교단위 접근을 시도하고자 취약지구 내 2개 학교를 선정하여,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및 등굣길 캠페인, 정서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군 발굴], [보호자 및 대상자 개별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학교-보호자 사례회의]의 단계적인 접근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읍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수상



지역안전개선분야에서 안전정책 혁신 유공으로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센터는 완주군의 인구 및 산업 구조를 반영한 ‘도·농 복합모델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여, 전북 14개 시·군 중 2년 연속 13위로 낮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맞춤 사업 추진으로 기관들과 주민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개 마을과 함께 추진하는 ‘마을지킴 프로젝트’는 지역 어르신의 정신건강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으며, ‘독거노인관리사업 마중(지금은 마음 배달 중)’은 독거노인의 정서적 위험상황을 빠르게 인지하여 대응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및 구직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헬로우(Hello ,안녕 친구)’ 프로젝트는

30~50대 자살예방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센터는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통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심화 교육 실시



2월 19일 도내 14개 시·군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1차 직무심화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파트너 사업운영>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각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 3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의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직무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9년 센터는 치매관리사업 발전과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치매 걱정 없고 노년이 건강한 전라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마음사랑병원 월례교육



월.례.교.육 1월

## 2019 업무계획 발표



1월 월례교육은 2019년 업무계획 발표로 진행되었다. 경영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바로 지금 집중! 바로 지금 실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문화된 치료를 통한 병원경쟁력 강화 ▲환자(고객)경험중심의 의료 서비스 실천 ▲개인/조직별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정착 ▲공감과 소통의 행복한 조직문화 형성 ▲지역 사회 연계를 통한 공공보건으로 활성화의 핵심 키워드로 인산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2019년 업무계획 발표에서는 인산재단 28개 부서가 참석하여 올해의 업무 계획 및 목표 그리고 기대 효과 등을 발표하며, 성과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고객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되었다.

월.례.교.육 2월

## 내 마음 네 마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읽자

<BYB 의료 커뮤니케이션>



2월 교육은 <BYB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주제로 박은주 강사가 진행하였다. 강의에서 박은주 강사는 환자의 마음을 여는 소통 기술로 ‘문제해결 대화’보다는 ‘감성적 대화’를 통해 상대의 감정을 읽고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것을 권하였다. 또한 고객에게 ‘1-Message’의 사용을 통해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나의 감정표현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것을 설명하였다. 해당 교육을 통해 환자와 고객을 효과적으로 응대하는 대화법을 배우고 이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기대해 본다.

\*BYB : Be Your Best



# 마음사랑병원 셔틀버스 운행안내



○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 마음사랑병원을 찾는 모든 방문객은 셔틀버스(낮병원 포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병원 출발	08:30	08:40	09:30	10:20	10:45	11:45	12:20	13:30	14:00	14:30	15:30	16:10	16:45
소양(연사무소)													
고려병원 앞													
안골(파리바게트)													
모래내(농협)	08:55		09:55		11:10	12:10		13:55		14:55	15:55		17:10
안골(향연유외과)	09:00		10:00		11:15	12:15		14:00		15:00	16:00		17:15
수한방 병원 앞(고려병원 건너편)	09:04		10:04		11:19	12:19		14:04		15:04	16:04		17:19
소양(농협)	09:11		10:11		11:26	12:26		14:11		15:11	16:11		17:26
병원	09:15		10:15		11:30	12:30		14:15		15:15	16:15		17:30
전주역(웨딩의전당 건너편)		08:55		10:33			12:33		14:13			16:27	
건지산 이지움 아파트		08:57		10:35			12:35		14:15			16:30	
안디옥 교회 정문		09:00		10:36			12:36		14:16			16:31	
전주덕진소방서 옆(전주시 재활용센터)		09:03		10:37			12:37		14:17			16:32	
롯데렌터카 전주지점(상성증권 전주지점 옆)		09:10		10:43			12:43		14:23			16:38	
고속버스터미널(텍시승강장 건너편 천변)		09:12		10:44			12:44		14:24			16:41	
시외버스터미널(중앙병원)		09:15		10:46			12:46		14:26			16:43	
한국은행 옆(공간타일도기)		09:20		10:50			12:50		14:30			16:45	
모래내(농협)		09:25		10:55			12:55		14:35			16:50	
안골(향연유외과)		09:28		10:58			12:58		14:38			16:53	
북일초등학교 정문(수협)		없음		11:00			13:00		14:40			없음	
대자인 병원 정문(자민약국)		09:31		11:02			13:02		14:42			16:56	
전주역 건너편(서강재활사)		없음		11:03			13:03		14:43			없음	
굴다리(CU 편의점)		09:35		11:07			13:07		14:47			16:58	
병원 도착		09:45		11:20			13:20		15:00			17:10	

\*공휴일은 운행되지 않으며, 토요일은 오전까지 미니순환버스만 운행됩니다. (미니순환버스: 1, 3, 5, 6, 8, 10, 11, 13회/대행버스: 2, 4, 7, 9, 12회) \*운행 시간표 및 노선은 바뀔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63-

## ○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 (평화동방면)

노선	1회	2회	3회	4회
병원 출발	8:40	10:20	14:15	16:10
슈퍼동 나이트	8:51	10:31	14:26	16:21
아중리 지하보도(파리바게트)	8:53	10:33	14:28	16:23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8:56	10:36	14:31	16:26
현대자동차(KT 옆)	9:00	10:40	14:35	16:30
경원동 기업은행	9:04	10:44	14:39	16:34
남문치과	9:06	10:46	14:41	16:36
서서학동 화신탕	9:08	10:48	14:43	16:38
평화동 지하보도(전주농협)	9:10	10:50	14:45	16:40
티파니힐	9:12	10:52	14:47	16:42
광진공작아파트 버스 승강장	9:15	10:55	14:50	16:45
남양향실아파트 버스 승강장	9:18	10:58	14:53	16:48
화산체육관 버스 승강장	9:22	11:02	14:57	16:52
한일고 지하보도	9:25	11:05	15:00	16:55
금암동 우성 뱃데리	9:27	11:07	15:02	16:57
전북은행 본점 버스 승강장	9:31	11:11	15:06	17:01
전북대병원 입구 버스 승강장(금암고물상)	9:34	11:14	15:09	17:04
대자인병원 응급실	9:37	11:17	15:12	17:07
전주역(서강재활사)	9:39	11:19	15:14	17:09
굴다리(CU 편의점)	9:42	11:22	15:17	17:12
병원 도착	9:50	11:30	15:25	17:20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나눔세상을 만들어갑니다.

# 마음사랑병원 마음사랑후원회

'마음사랑후원회'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인간사랑'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 및 보호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마음사랑후원회'는 내부 직원 및 외부 후원자 약 500명이 정기적으로 후원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후원회 참여방법 ☎ 마음사랑병원 사회사업팀: 063-240-2150

- 정기후원** CMS 후원신청서 작성 후 직접 지정해 주신 계좌에서 매월 5,000원 이상이 자동이체 되는 방법입니다.
- 비정기후원** 원하시는 금액을 직접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농협 : 356-1181-5666-13 경운진)
- 물품후원** 의복, 식품, 도서 및 생활필수품 등 환우에게 도움이 되는 물품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 2018년 11월~2019년 1월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명단

### 자원봉사자 총 276명

- [생활지원\_한사랑이미움] 강남경, 김오숙, 강선자, 강성자, 강영란, 김순영, 김득희, 김리화, 김문선, 김미희, 김순영, 김옥순, 김은주, 김중숙, 김한성, 김현숙, 박광호, 박광희, 박선희, 박은선, 서영미, 서순애, 설동원, 소길래, 신경옥, 신별룡, 양인숙, 엄문화, 엄종원, 유소영, 옥기순, 윤옥선, 윤옥임, 윤정희, 이경선, 이상현, 이순희, 이서은, 이유숙, 이지선, 이해숙, 임갑경, 장성자, 전은경, 정수미, 조선희, 우정옥, 홍익현, 황영순, 황재희 (50명)
- [생활지원\_식당] 국민숙, 권정남, 김순옥, 김순자, 김연순, 김용, 리봉자, 박명순, 백경옥, 유금순, 이걸순, 이영로, 이영순, 이정순, 이종화, 이순단, 이순애, 육복순, 전옥여, 정순례, 정옥자, 홍옥희 (22명)
- [생활지원\_개인자원봉사자] 이지영, 김성관, 강옥자 (3명)
- [정서지원\_기독교] 신민경 목사님, 권영철 목사님, 조윤희 목사님, 김태식, 김광서, 류시영, 문화화, 박경순, 송진화, 신은순, 신필호, 양상자, 오봉애, 윤태숙, 정진기, 최희용, 토요예배 공연: 김미성, 김순옥, 손재연, 이해림, 임미현, 임창희 (22명)
- [정서지원\_천주교] 천주교 전주교구청 장진석(도미니코), 신부 김선미(수선), 수녀 서용자, 은빛세실성가대: 강선옥, 김순자, 김양순, 김영란, 김영숙, 김경서, 김경애, 김진순, 노혜림, 문창자, 박경림, 백춘옥, 서성남, 신옥주, 신경숙, 양계순, 오정은, 유귀자, 유옥희, 이순자, 이영자, 이옥란, 이의순, 이정숙, 이정자, 장필남, 정순례, 정해금, 조규자, 최부선, 한송숙 (34명)
- [정서지원\_다도] 김근남, 김찬림, 이미경, 최희운 (4명)
- [정서지원\_개인봉사자] 고은배, 김소진, 김은서, 유관우, 이기훈, 이서정, 채수영, 최혜민 (8명)
- [정서지원\_공연봉사단] '누리에술단', '늘푸른예술단', '유지양상블', '소리에반하다', '웃음치로', '웃음/울음치로', '전북사랑예총봉사단', '전주퀸하우스', '행복나눔 음악회', '호산나' 등 (약 120명)
- [자원봉사자(학교)\_천주대] 강지현, 김주란, 김주현, 김혜원, 모민중, 박서현, 박연주, 박후경, 송혜린, 이예림, 이해민, 한상진 (13명)

### 외부 후원 총 445명

(유)전보그린, (주)내외정보기술, (주)동남의료약품, (주)보감병원지점, (주)인스나인, 가계숙, 강경옥, 강경희, 강나루, 강수경, 강영석, 강인숙, 강찬오, 강재호, 강희수(경원유니콤), 강희봉, 경대용, 고남수, 고병호, 고석오, 고순희, 곽동호, 곽영영, 곽태연, 구도형, 권선미, 권용주, 김경호, 김경조(우아식품), 김경희, 김광현, 김구형, 김기태, 김기봉, 김남일, 김내영, 김달진, 김대용, 김동렬, 김동철, 김리원, 김미경, 김민재, 김민재, 김병직, 김복순, 김석진, 김성수, 김성숙, 김성식(1981), 김성식(1975), 김성태, 김순연, 김소현, 김수연, 김순희, 김승민, 김승민, 김시연, 김연경, 김영실, 김영자, 김영희, 김옥단, 김옥실, 김용문, 김용숙, 김용철, 김용현, 김원주, 김운경, 김운정, 김운중, 김은경, 김은애, 김은지, 김정남, 김정수, 김정연, 김정은, 김경춘, 김경화, 김경희, 김중국, 김중원, 김준근, 김준현, 김중은, 김자수, 김지연, 김지은,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희, 김찬영, 김창현, 김학근, 김현기, 김현민, 김현희, 나경미, 나기원, 나이현, 노경란, 노옥임, 노옥희, 노진성, 노현정, 도유약품, 동안용, 류세나, 류형선, 오은영, 문기영, 문리리, 문미경, 박경철, 박근영, 박금숙, 박기성, 박문규, 박미자, 박배희, 박병석, 박봉순, 박병준, 박병철, 박보람, 박삼례, 박상현, 박상규, 박세희, 박순례, 박영근, 박영희, 박요안, 박윤희, 박인경, 박지순, 박정호, 박지희, 박찬미, 박현철, 박현정, 박현숙, 박현정, 박혜민, 배서라, 배수향, 배옥희, 배자영, 백도현, 백석기, 백선중, 백수경, 백조아, 백현란, 변동균, 변오석, 서경태, 서숙연, 서정원, 선옥희, 선진태, 성백준, 성병일, 성병주, 성병희, 성실, 성윤정, 성진영, 손주안, 송영민, 송민선, 송병실, 송선희, 송애란, 송영란, 송원선, 송은혜, 송인미, 송중훈, 송지연, 송호, 신명옥, 신영미(어진유통), 신은옥, 신태성, 신필호, 신현호, 신해진, 신희수, 심경숙, 안만호, 안미영, 안성숙, 안승규, 안시현, 안정희, 안종석, 안태훈, 안훈규, 이승주, 염성규, 염혜영, 오복순, 오상호, 오은영, 오재현, 오정화, 오혜진, 왕은임, 왕용기, 왕선일, 왕태진, 우옥녀, 우양균, 원경화, 원다혜, 유능한, 유도근, 유수연, 유은선, 유은영, 유재영, 유지민, 유창균, 유충원, 유해광, 유현희, 유형규, 유호연, 육희경, 윤광수, 윤남순, 윤연재, 윤미라, 윤석용, 윤성숙, 윤창수, 윤혜진, 윤준경, 은상복, 이기은, 이경은, 이광배, 이금단, 이기성, 이남숙, 이다은, 이대현(1963), 이대현(1984), 이동규, 이동영, 이득남, 이미림, 이미숙(1963), 이미숙(1968), 이민지(1989), 이민지(1991), 이범식, 이병영, 이병남, 이병도, 이상교, 이상수, 이상훈, 이상희, 이상희, 이상희(1970), 이상희(1972), 이상철, 이수진, 이승연, 이승철, 이승환, 이연수, 이연숙, 이영광, 이영우, 이영일, 이영자, 이영희, 이옥순, 이옥심, 이유나, 이민미, 이민지, 이민희, 이의철(한주상사), 이인원, 이인재, 이강희, 이계진, 이계은, 이재현, 이정덕, 이경숙, 이정우, 이정은, 이종배, 이종원, 이종철, 이준, 이준영, 이준희, 이지영, 이지현, 이진수, 이진희, 이창수, 이창원, 이차성, 이태형, 이현민, 이현숙, 이현주, 이형구, 이형규, 이효숙, 이후정, 이희선, 이희진, 임경숙, 임경환, 임대식, 임태영, 임두수, 임미경, 임영선, 임영숙, 임옥희(경아영), 임용환, 임인서, 임종학, 임지영, 임창진, 임현희, 장선호, 장연, 장영진, 장영희, 장은옥, 장지숙, 장지훈, 장한보, 건북종합버스, 전서원, 전세환, 전은선, 전현수, 전현수, 전현희, 정병우, 정수경, 정순실, 정순태, 정승현, 정영석, 정은누리, 정은숙, 정은빈, 정은희(하림완산대리점), 정희성, 정기현, 정진권(보성수산), 정진철, 정중용, 정해운, 정혜경, 조영희, 조이명, 조선우, 조순희, 조우진, 조윤희, 조재익, 조현은, 조훈, 지동현, 진공숙, 진영준, 차동훈(서울유아종합급사), 차연수, 채길영, 채효선, 천창영, 최고은, 최동순, 최만희, 최미영, 최상수, 최수자, 최명식, 최영철, 최용석, 최윤경, 최윤주, 최인석, 최인성, 최진기, 최현석, 최현준, 김스메디칼, 하나구급센터, 하남주(하이푸드), 하선경, 하태현, 한길순, 한대진, 한병길, 한성중(주채중, 한솔에이펙스, 한승희, 한시중, 한신희, 한영자, 한재근, 한정순, 한정희, 한현수, 헤미란, 현희성(부귀농협김치), 현영자, 홍문기, 홍상표, 홍선화(1973), 홍선화(1985), 홍인선, 홍지용, 홍진성, 홍주룡, 황성, 황철현, 황하나

### 내부 후원 총 15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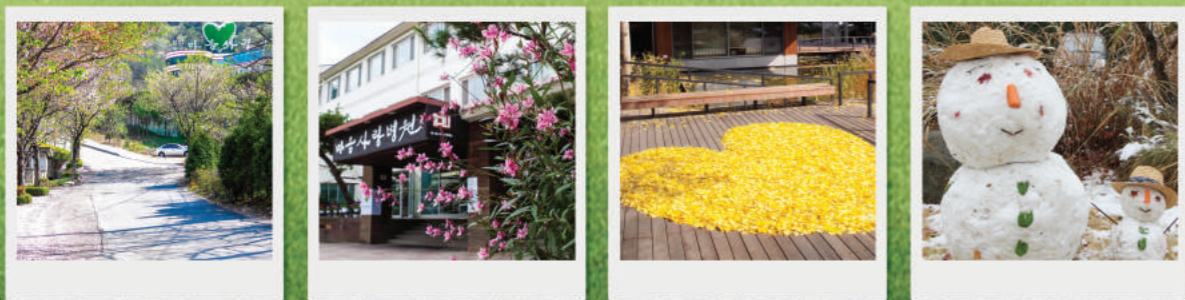
강경석, 강남인, 강서연, 강성환, 강수연, 강승민, 강애숙, 강원화, 강정순, 강해진, 고소영, 고정선, 박 준, 구유준, 김 만, 김민진, 김병배, 김복덕, 김서경, 김서현, 김성수, 김성희, 김성의, 김소리, 김수빈, 김수용, 김연아, 김예은, 김은희, 김은애, 김은진, 김정은, 김지우, 김지태, 김현수, 김현희, 김형태, 김화정, 나설이, 당명일, 모은희, 박민실, 박상철, 박소라, 박용현, 박윤성, 박정은, 박정희, 박지영, 배운희, 배은희, 백경림, 백주혜, 백철호, 서소영, 서지혜, 서지훈, 성경현, 소정선, 손성순, 송명재, 송봉용, 송석주, 송혜경, 신연숙, 신경은, 심성주, 엄정희, 오남수, 오동희, 오영선, 오유림, 오진순, 율태영, 유지연, 유미순, 유슬기, 유연실, 유해림, 윤경선, 윤여민, 윤홍익, 이근희, 이금단, 이나라, 이다빈, 이민실, 이민정, 이세희, 이윤진, 이승연, 이승희, 이아름, 이윤진, 이은자, 이경영, 이주희, 이지연, 이진영, 이진주, 이준재, 이하정, 이해림, 이해정, 이해숙, 이희자, 이희선, 이희준, 임덕임, 임동균, 임솔미, 강유미, 강혜숙, 권대원, 권은자, 정경남, 정보라, 정성근, 정연숙, 정은진, 정의성, 정현순, 정혜정, 조대성, 조이라, 조인경, 전연희, 천영자, 최강현, 최금철, 최민서, 최인숙, 최재희, 최희은, 최현재, 최현규, 최준석, 허근혜, 허영숙, 한명일, 한상수, 한영은, 합수경, 허진아, 홍선우, 홍성호, 홍은미, 홍정숙, 홍경옥, 황승연

\* '마음사랑 후원회' 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되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 '마음사랑 후원회'는 6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1회 후원회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 후원금은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환우의 가족지원비, 생필품 지원비, 연 1회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행사, 정신장애인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정신보건 유관기관 지원 등 다양한 곳에 소중하게 쓰입니다.



# 마음사랑병원 사진 공모전

마음사랑병원에는 하늘하늘 핀 야생화, 해질녘의 노을, 비 내리는 날의 청량함 등  
평소에 당연하게 지나치는 아름다운 풍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 보기 아깝다고 생각되는 순간의 아름다움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진이 작품으로 태어납니다.



접수기간 : 2019. 03. 01. ~ 2019. 04. 30.

| 응모자격 | 누구나

| 접수방법 | 메일을 통한 사진파일 접수(jpg 파일)

| 작품주제 | 마음사랑병원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 출품수 | 1인당 5점 이내(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에 한함)

|作品内容| 마음사랑병원에서 촬영한 사진

\* 환자 및 보호자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의 경우,  
초상권 사용 동의를 함께 첨부해주세요.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결과발표 | 2019년 5월 첫째주, [본원 홈페이지]-[병원소식]  
수상작은 마음사랑 소식지 <2019 여름호>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 수상내역 | 최우수상 1점 / 우수상 1점 / 장려상 3점  
(문화상품권 각 10/5/3만원 상당)

| 접수처 | 마음사랑병원 기획팀

문의 : 063-240-2281 / 메일 : ksy21222@naver.com

※ 응모작품은 병원 홍보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유일

# 마취하 전기자극치료(M-ECT)

## 이제는 마음사랑병원에서!

심한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국제적으로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치료로  
전라북도에서는 마음사랑병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어떤 질환에 효과적인가요?

- ✓ 심한 우울증
- ✓ 양극성 장애(조증)
- ✓ 조현병
- ✓ 분열정동장애
- ✓ 긴장증

### 치료효과는 언제쯤 나타나나요?

전기자극치료의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지만, 많은 환자들이 2-3회의 치료를 받고부터 증상의 호전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치료진행 : 일주일에 2~3회, 경과에 따라 5~12회 시행, 20~30분 소요

### 아래의 경우에는 전기자극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 약물 등 기존의 치료로 큰 호전이 없는 경우
- 빠른 증상 호전을 필요로 할 때
-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약물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약물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 난폭한 행동을 보이거나 자살 위험성이 높은 경우
- 식사를 거부하거나 탈진 상태에 이른 경우
- 임신으로 약물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 문의 : 063-240-2100 (외래진료 후 치료 결정)